

## 평생직업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sup>1)</sup>

- 누구나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하여 -

이상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연구본부 패널통계센터장

한국은 지난 1970, 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의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증가 등 국내의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 전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으로 명명하고, 대학진학형·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특징과 필요성, 그리고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sup>2)</sup>

### 1.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의 특성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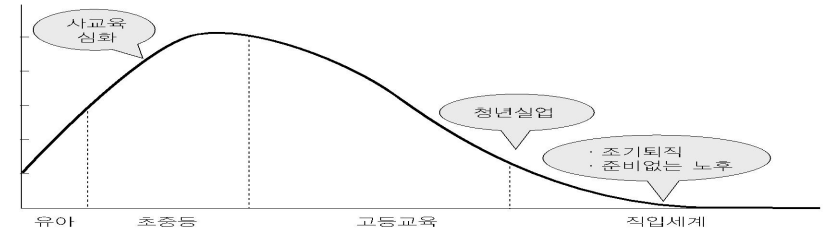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의 특징은 초중등 단계에서 집중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유아, 고등교육, 직업세계 단계에서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인기의 인적자원개발을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생학습참여율은

1) 본 자료는 「21세기 국가전략 : 학습곡선의 혁명: '대학진학형'에서 '평생직업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를 요약한 것임

2)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은 초중등교육 단계에 시간적·물적으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투자와 고등교육 및 직업세계 단계에서의 학습에 대한 저투자로 요약될 수 있고,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은 초중등교육의 효율화와 고등교육과 직업세계에서의 학습에 대한 시간적·물적 투자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다.

〈그림 1〉 대학진학형 학습곡선



주: 1) 유아 단계는 유아교육참여율, 초중등은 주당 학업시간, 고등 단계와 직업세계는 주당 학습시간(통계청(2006), 생활시간조사)을 근거로 생애 단계별 특징을 형상화함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성인(15세~64세)의 평생학습<sup>3)</sup>참여율은 29.8%,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10.5%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져 55세 이상인 경우 참여율은 23.9%를 기록하였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16.8%로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평생학습은 주로 교양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평생학습참여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더욱 낮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성인들의 직무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이 12.7%에 불과한 반면, 덴마크 52.5%, 미국 44.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참여희망률이 58.7%(통계청, 2004) 수요와 실제 참여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평생학습 범주: 학교교육 참여와 관련한 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인 비형식교육으로 구분

<표 1> 2007년 평생학습참여율(25~64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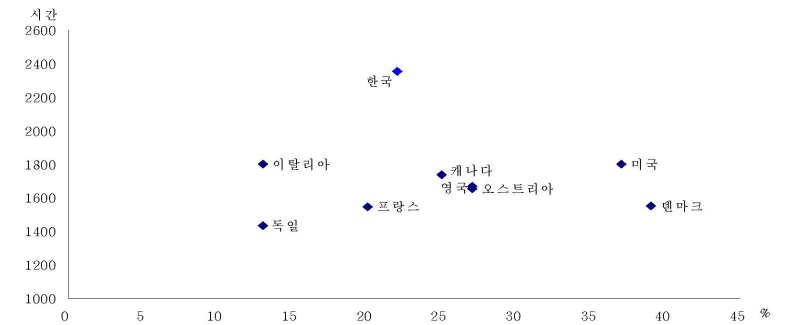
| 구 분    | 전체 참여율<br>(형식비형식) | 학습범주별 참여율 |                   |       |        |
|--------|-------------------|-----------|-------------------|-------|--------|
|        |                   | 형식교육      |                   | 비형식교육 |        |
|        |                   | 전체        | (초기교육단계<br>학생 제외) | 전체    | (직업관련) |
| 전체     | 29.8              | 5.7       | 2.3               | 26.4  | 10.5   |
| 성별     |                   |           |                   |       |        |
| 남자     | 28.9              | 7.2       | 2.0               | 24.6  | 14.6   |
| 여자     | 30.7              | 4.2       | 2.5               | 28.2  | 6.5    |
| 연령     |                   |           |                   |       |        |
| 25~34세 | 36.3              | 15.3      | 3.7               | 26.7  | 12.9   |
| 35~44세 | 29.2              | 1.9       | 1.7               | 28.4  | 11.2   |
| 45~54세 | 26.5              | 2.5       | 2.3               | 25.4  | 8.7    |
| 55~64세 | 23.9              | 0.7       | 0.7               | 23.5  | 7.9    |
| 학력     |                   |           |                   |       |        |
| 중졸 이하  | 16.8              | 0.2       | 0.2               | 16.6  | 6.5    |
| 고졸     | 24.5              | 6.1       | 1.7               | 20.6  | 6.6    |
| 대졸 이상  | 39.4              | 7.1       | 3.6               | 35.6  | 15.9   |
| 경제활동상태 |                   |           |                   |       |        |
| 취업     | 26.5              | 2.6       | 2.2               | 25.2  | 13.1   |
| 실업     | 36.2              | 16.8      | 4.0               | 25.6  | 17.4   |
| 비경제활동  | 35.6              | 10.2      | 2.2               | 29.1  | 3.8    |

주: ( )안의 숫자는 평생학습 참여자의 연평균 1인당 평생학습 투자비용을 나타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12.27).

이처럼 학령기 중심적 투자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습 시스템의 접근이 아직까지 다분히 학교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평생학습의 슬로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호응을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교육 및 학습에 대한 투자는 학령기 중심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보다 실체를 갖춘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그림 2> 근로시간과 평생학습참여율



자료: OECD(2007), OECD Factbook.

## II.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필요성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는 기술집약적 · 혁신주도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서는 대학진학형 학습체제로는 한계를 갖게 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길은 본격적인 지식경제로 진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모든 제도와 정책이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축적을 고취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기술집약적 · 혁신주도적인 경제구조에 부응하기 위해 요청되는 인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력,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인재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의 확대가 중요하고, 늘어난 여가시간 동안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혁명만 지식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기술주도적 · 혁신주도적 경제구조하에서는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수요에 맞는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그 학습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는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사회로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을 그릴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이 된다면 초·중·고교육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 고등교육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곡선의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빈곤률이 낮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실시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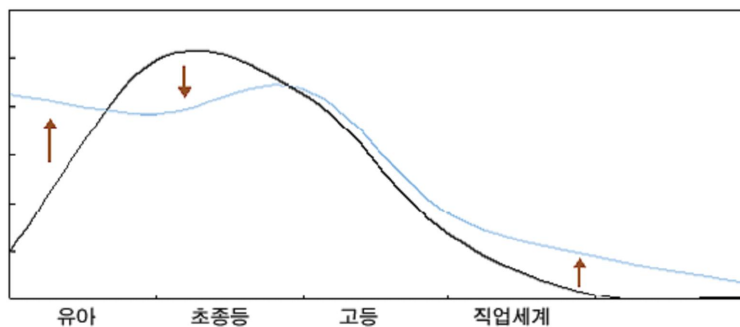
(active labor market policy) 등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기간이 길어지는데 반하여 직업시장 환경의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중고령자에 대한 평생학습을 강조한다면 전 생애에 걸친 고른 학습투자를 위해서는 대학진학형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 III.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모습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은 초중등 단계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유아, 고등교육, 직업세계 단계에서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었다.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체제는 대학진학형 학습곡선과 대비해 봄으로써 그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유아교육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 초중등 단계의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sup>4)</sup>, 고등교육 단계에 보다 많은 투자와 높은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 직업세계의 학습이 양적·질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3>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주: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은 미래의 패러다임으로서 3만 달러 국가의 하나인 스웨덴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형상화함

4) 이는 학습투자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입장이며 초중등학습이 대학진학에 올인하는 학습이 아니라 창의적 학습, 사회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을 지향하자는 것임.

한편,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사회의 구체상을 그려보기 위해 3만 달러 국가들의 하나인 스웨덴을 모델로 한 관련지표들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진학형 학습곡선 사회와 평생직업형 학습곡선 사회의 지표

|                     | 대학진학형<br><현재: 한국> | 평생직업형<br><미래: 스웨덴> |
|---------------------|-------------------|--------------------|
| 1인당 GDP(PPPs; 2005) | 22,098 달러         | 32,111 달러          |
| IMD 국가경쟁력 (2007)    | 29위               | 9위                 |
| 고용률(2005)           | 63.7              | 73.9               |
| - 여성 고용률            | 52.5              | 71.8               |
| - 청년층 고용률           | 29.9              | 42.5               |
| - 고령층 고용률           | 58.7              | 69.6               |
| 평생학습참여율             | 21.6              | 40.0               |
| 유아교육참여율(2004)       | 20.3              | 85.1               |
| 주당 학업시간(2003)       | 49.4 시간           | 27.6 시간            |
| 초중등 공교육비(2003)      | 10,508 달러         | 14,953 달러          |
| 대학경쟁력(산업부합도)        | 40위               | 18위                |
| 삶의 질                | 38위               | 12위                |
| 근로자 교육훈련 중요도 인식     | 24위               | 6위                 |

주: 평생학습참여율은 한국 2004년, 스웨덴 2003년.

대학경쟁력, 삶의 질, 근로자교육훈련중요도 인식 순위는 IMD 2007 순위.

자료: OECD(2007), OECD Factbook.

IMD(2007),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평생직업형 학습시스템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요구하는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학령기 양성 단계에서 전 생애 단계의 인재 양성과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습재원을 확대하고 고루 분산하는 확대된, 범부처적인 HRD정책이다. 또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에서는 정부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로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던 노사관계 역시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노조 역시 인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표 3> 대학진학형과 평생직업형 패러다임

|                   | 대학진학형 학습사회(현재)                                           | 평생직업형 학습사회(미래)                                                 |
|-------------------|----------------------------------------------------------|----------------------------------------------------------------|
| 학습 시스템            | • 단선적·분절적·경직적 학습체제<br>- 연령 단계에 따른 단선 학습: 학습→일→은퇴         | • 생애에 걸친 학습-일 병행 시스템<br>- 유연하고, 다양하고 열린 시스템                    |
| 학습 선택의 주도권        | • 공급자(교육기관)                                              | • 수요자(학습자)                                                     |
| 산업영역과의 연계         | • 교육영역의 독자성·폐쇄성<br>• 교육 내적 성장원리                          | • 산업 수요와의 연계                                                   |
| 경제구조              | 산업화 시대<br>• 주격형, 모방형 경제구조<br>- 대규모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중급인력 양성   | 지식기반경제<br>• 혁신주도형 경제구조<br>-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br>-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
| 성장동력              | 물적 자본                                                    | 인적자본(지적자본)                                                     |
| HRD 정책의 focus(개념) | • 학령기 인적자원의 양성에 초점                                       | • 전 생애 단계의 국민<br>• 초기 인적자원 양성<br>- 청년기와 성인기의 인적자원 활용에 초점       |
| 정부의 역할            | • 교육부 중심의 HRD<br>• 정부부처별 분절화된 정책<br>•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과 시행 | • 범부처 간 연계 및 통합적인 지원<br>•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                   |
| HRD 재정            | • 초기 인적자원 양성 투자 집중                                       | • 성인기 인적자원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선제투자<br>• 전 생애 고른 학습재정 배분            |
| 민간의 역할            | • 무관심<br>• 규제와 중앙집권화                                     | • 적극적 참여<br>• 자율과 분권                                           |
| 노사관계 (교섭의제)       | • 임금과 근로조건 교섭                                            | • 사람 중심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더욱 중요<br>- 숙련 교섭(skill bargaining)    |

국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전 생애 단계의 국민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통하여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성이나 흥미, 적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반복적인 학습, 지속적인 선행학습을 하는 상황이지만, 대학진학이 하나의 관문일 뿐이며, 다양한 기회가 향후에도 존재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학습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학습을 즐겨워하고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은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토양이 될 것이다.

둘째, 이태백, 사오정,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일자리의 위기를 학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경쟁력을 얻음으로써 평생 직업안정을 확보함은 물론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성인들의 노후를 위한 투자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현재 대학진학 준비와 이를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은 학부모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진학이 유일하게 중요한 선택 단계가 아니라 제2, 제3의 기회가 제공될 때에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대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중년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성인들의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해진다. 평균수명은 길어진 데 비해, 노동시장의 패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생애 단계와 근로 단계가 매우 큰 괴리를 갖게 되고, 다수의 중장년 성인들, 노인들의 심적·물적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성인기에 학습이 활성화되고 학습결과가 자격이나 인증제를 통해 직무능력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의 역할을 하여 새로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평생직업형 학습체제에서는 성인들의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장년 이후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여성들은 직장가 가정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성 일자리는 늘어나고 보육의 부담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높은 유아교육참여율을 보이는 북유럽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참여율은 물론 높은 민간의존도를 보이는 보육 시스템에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아동의 삶,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처럼, 평생직업형 HRD 체제로의 이행은 생애 단계별로 개인의 생산성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 IV.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을 위한 정책과제

지금까지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으로서 학습곡선 혁명의 필요성과 새로운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생학습곡선의 혁명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학습 총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지만 예산, 인력 등 인프라를 보면 여전히 수사학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 다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학습 총량을 늘리고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의 시기가 생애 단계별로 연속적이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의 질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창의적 학습, 실사구시적인 학습, 더불어 나누는 사회적 자본 축적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배움의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전략이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성장의 화두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어우러지는 동반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OECD(2007), OECD Factbook.

IMD(2007),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12.27).

통계청(2006),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로 보는

## 평생 직업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홍광표/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펠로우 · 통계센터 연구원

196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그 원동력을 경제개발정책, 수출전략, 대외적인 환경요인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성장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진학 경쟁을 구심력으로 하여 높은 교육열에 바탕을 둔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에서 생애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학습의 양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유아, 고등교육, 직업세계의 단계에서는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진학형의 학습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 학습 스케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초·중·고 단계에서 사교육의 심화와 청년기에 있어서는 청년실업, 나아가 조기퇴직과 준비 없는 노후 등 생애 전반에 있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전략 패러다임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I. 초·중·고 단계: 고학업량,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 저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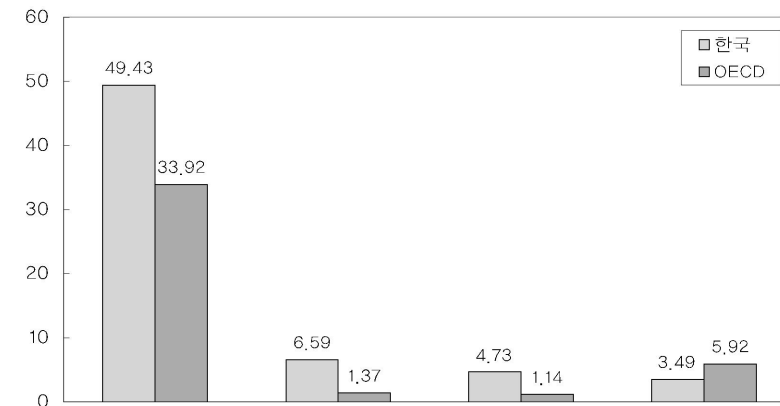
초·중·고 단계에서 인적자원의 특성은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이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PISA(2003)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당 학업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33.92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충수업이나 사교육 시간이 많고 숙제 시간 등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당 학업시간

(단위: 시간)



주: 주당 학업시간 = 주당 보충수업시간+주당 사교육시간+주당 숙제시간 +주당 학교수업시간  
자료: PISA(2003)

PISA(2006)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읽기 영역은 1위, 수학 및 과학 영역 모두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읽기는 556점, 수학은 547점, 과학은 522점을 기록해 OECD평균을 상회하고 있었다. OECD 국가 평균 읽기는 492점, 수학은 498점, 과학은 500점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PISA 영역별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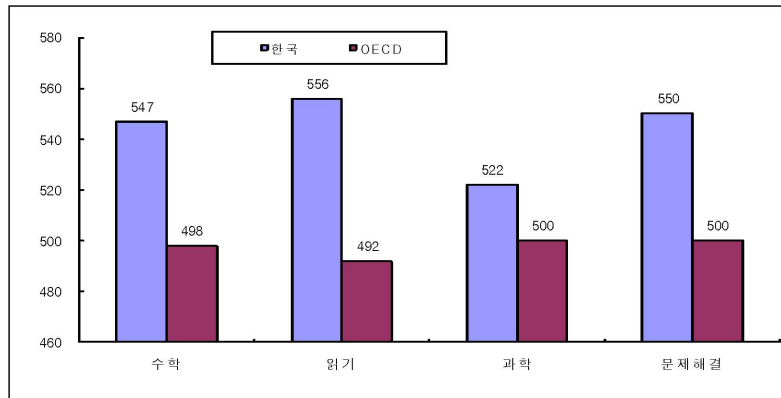
(단위: 점)

| PISA 평가<br>(비교국 수)                | 읽기 영역 |     | 수학 영역 |     | 과학 영역 |     | 문제 해결력 영역 |     |
|-----------------------------------|-------|-----|-------|-----|-------|-----|-----------|-----|
|                                   | 순위    | 평균  | 순위    | 평균  | 순위    | 평균  | 순위        | 평균  |
| PISA 2006<br>(57개국)               | 1     | 556 | 1~4   | 547 | 7~13  | 522 | 해당 사항 없음  |     |
| PISA 2003<br>(40개국)               | 2     | 534 | 3     | 542 | 4     | 538 | 1         | 550 |
| PISA PLUS <sup>5)</sup><br>(41개국) | 6     | 525 | 3     | 547 | 1     | 552 | 해당 사항 없음  |     |
| PISA 2000<br>(31개국)               | 6     | 525 | 2     | 547 | 1     | 552 | 해당 사항 없음  |     |

자료: PISA(2006)

<그림 2> 학업성취도

(단위: 점)



자료: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성별로 살펴보면 읽기 영역에서는 국제적으로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경향으로 남학생 평균이 539점, 여학생 평균이 574점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에서는 국제적으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학생 평균이 552점, 여학생 평균이 543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 영역에서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성별로 별 차이가

5) PISA PLUS : PISA 2000 실시 이후 동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1년에 PISA 2000과 같은 평가도구로 평가를 수행하여 PISA 2000 평가결과와 합한 총 41개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네덜란드, 루마니아는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분석에서 제외)

없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학생 평균이 523점, 남학생 평균이 521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2> PISA 성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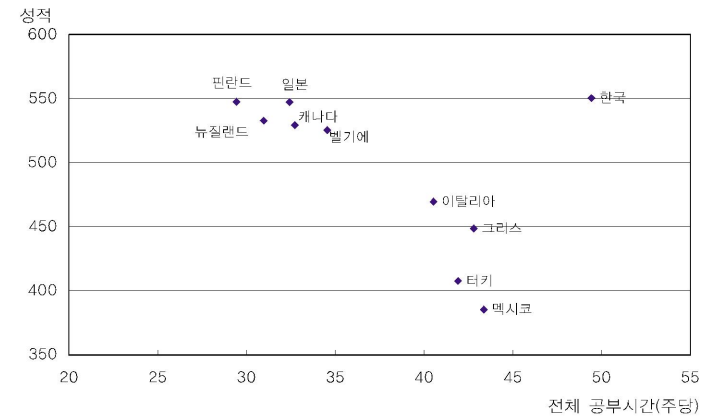
(단위: 점)

|       |      | 전체  | 남자  | 여자  |
|-------|------|-----|-----|-----|
| 읽기 영역 | 한국   | 556 | 539 | 574 |
|       | OECD | 492 | 473 | 511 |
| 수학 영역 | 한국   | 547 | 552 | 543 |
|       | OECD | 498 | 503 | 492 |
| 과학 영역 | 한국   | 552 | 521 | 523 |
|       | OECD | 500 | 501 | 499 |

자료: PISA(2006)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투입시간에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핀란드,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학습량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국가별 전체 학업시간과 문제해결 성적



주: 학업시간은 '무응답 조정 전'의 수치임. 단,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무응답 조정 후'임.  
자료: PISA(2003)

## II. 고등교육 단계: 저조한 투자와 낮은 교육성과

초중등 단계와 달리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2004년 현재 7,068달러(PPP기준)로 OECD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OECD 회원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4년)

(단위 : PPP환산 달러)

| 구분             | 유아교육<br>(3세이상)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              | 중등후<br>비고등<br>교육 | 고등교육(연구개발활동 포함) |                                  |               | 연구개발<br>활동을<br>제한한<br>전체고등<br>교육<br>단계 | 전체<br>초·중·<br>고등교육 |
|----------------|----------------|--------------|--------------|--------------|--------------|------------------|-----------------|----------------------------------|---------------|----------------------------------------|--------------------|
|                |                |              | 전기<br>중등교육   | 후기<br>중등교육   | 전체<br>중등교육   |                  | B유형<br>고등교육     | A유형<br>고등교육<br>및<br>전문연구<br>프로그램 | 전체<br>고등교육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핀란드            | 4,282          | 5,581        | 8,918        | 6,555        | 7,441        | x(5)             | 8,729           | 12,507                           | 12,505        | 7,697                                  | 7,798              |
| 프랑스            | 4,938          | 5,082        | 7,837        | 9,883        | 8,737        | 4,081            | 9,113           | 11,195                           | 10,668        | 7,372                                  | 7,880              |
| 독일             | 5,489          | 4,948        | 6,082        | 10,459       | 7,576        | 10,573           | 6,413           | 13,218                           | 12,255        | 7,724                                  | 7,802              |
| 이탈리아           | 5,971          | 7,390        | 7,657        | 7,971        | 7,843        | m                | 8,378           | 7,716                            | 7,723         | 4,812                                  | 7,723              |
| 일본             | 3,945          | 6,551        | 7,325        | 7,883        | 7,615        | x(4.9)           | 7,619           | 13,777                           | 12,193        | m                                      | 8,148              |
| <b>한국</b>      | <b>2,520</b>   | <b>4,490</b> | <b>6,057</b> | <b>7,485</b> | <b>6,761</b> | <b>a</b>         | <b>4,263</b>    | <b>8,600</b>                     | <b>7,068</b>  | <b>6,154</b>                           | <b>5,994</b>       |
| 영국             | 7,924          | 5,941        | x(5)         | x(5)         | 7,090        | x(5)             | x(9)            | x(9)                             | 11,484        | 8,792                                  | 7,270              |
| 미국             | 7,896          | 8,805        | 9,490        | 10,468       | 9,938        | m                | x(9)            | x(9)                             | 22,476        | 19,842                                 | 12,092             |
| <b>OECD 평균</b> | <b>4,741</b>   | <b>5,832</b> | <b>6,909</b> | <b>7,884</b> | <b>7,276</b> | <b>4,315</b>     | <b>~</b>        | <b>~</b>                         | <b>11,100</b> | <b>7,951</b>                           | <b>7,061</b>       |

주 : 전일제 학생 기준, 교육단계별 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임.

자료 :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표 4〉에서 고등교육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 OECD 회원국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200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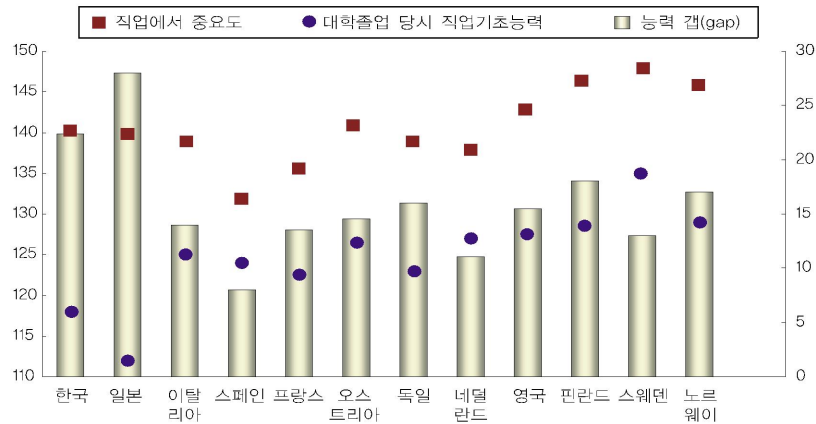
| 구분             | 초중등교육      | 고등교육       | 전체         |
|----------------|------------|------------|------------|
| 핀란드            | 3.9        | 1.8        | 6.1        |
| 프랑스            | 4.1        | 1.3        | 6.1        |
| 독일             | 3.5        | 1.1        | 5.2        |
| 이탈리아           | 3.4        | 0.9        | 4.9        |
| 일본             | 2.9        | 1.3        | 4.8        |
| <b>한국</b>      | <b>4.4</b> | <b>2.3</b> | <b>7.2</b> |
| 영국             | 4.4        | 1.1        | 5.9        |
| 미국             | 4.1        | 2.9        | 7.4        |
| <b>OECD 평균</b> | <b>3.8</b> | <b>1.4</b> | <b>5.8</b> |

자료 :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그림 4]의 직업에서 중요도를 통해 살펴볼 때,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영국에서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스페인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졸업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 능력이 낮은 나라는 일본 한 나라뿐이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대학에서 육성되는 능력간의 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의 수준



주: 우리나라는 2001년 대학 졸업생에 대한 2005년 조사이며, 다른 나라는 1994/95년 졸업생에 대한 1999/2000년 조사  
 자료: 채창균 외(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채인용

### Ⅲ. 직업세계 단계: 저조한 평생학습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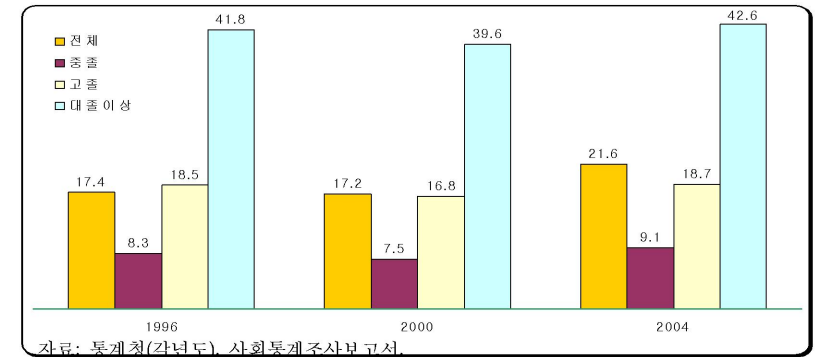
성인기의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대표적으로 평생학습을 들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1년 동안 평생학습이참여율은 21.6%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한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3.4%이며, 핀란드, 영국 등 대부분 OECD 국가의 평생학습참여율에 비해 매우 낮고, 직무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1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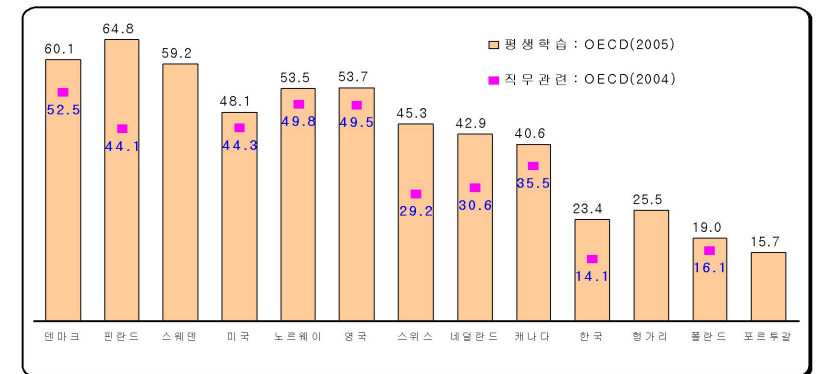
6) 평생학습 범주: 직장연수, 학원 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라디오/인터넷 강좌 등

<그림 5>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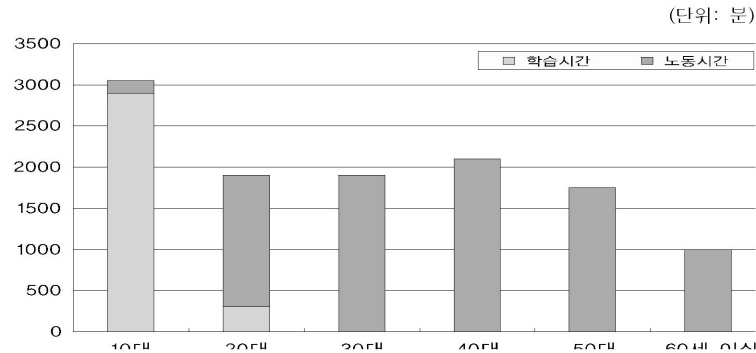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 25~64세 기준 국제성인문해력조사(IALS)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 사회통계조사 결과  
 자료: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OECD(2005). Promoting Promoting Adult Learning, 청와대브리핑(2005). 평생학습 참여실태 분석 보고

연령대별 학습시간과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1주간 학습시간이 48시간 53분, 20대 5시간 22분, 30대 14분, 40대 7분, 50대 이상의 경우 전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보다는 노동하는 시간이 많다는 결과와 연관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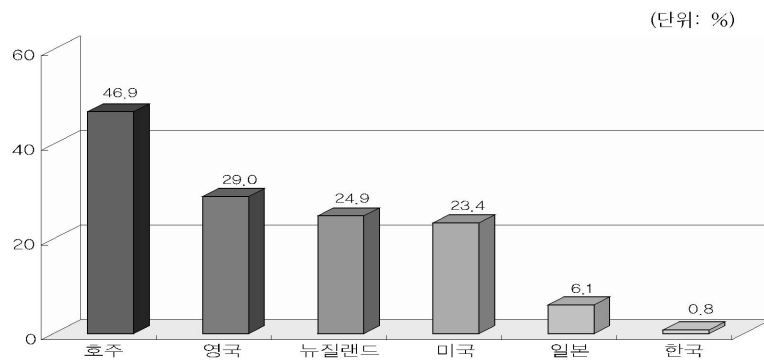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주당 학습시간과 노동시간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지금까지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특징은 양적으로 참여율이 낮다는 점, 그나마 참여 기회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참여율이 낮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투자비용을 보면 그 열악함의 수준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은 0.8%로, 호주(46.9%), 영국(29.0%), 뉴질랜드(24.9%), 미국(23.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가 OECD 국가 중 미국(7.2%)에 이어 덴마크와 공동 2위 수준(7.1%)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그림 7〉 주요 국가의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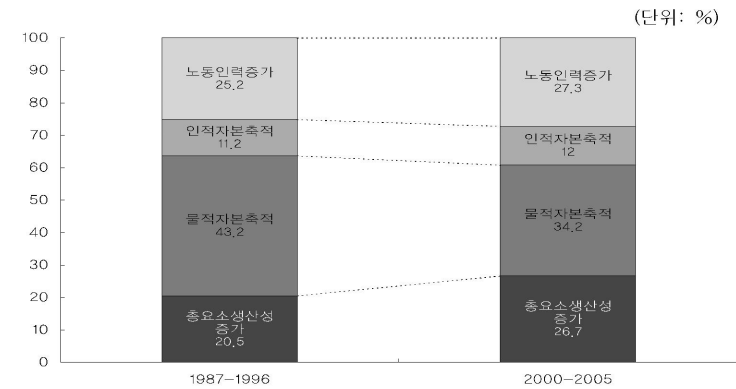
주: 한국은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 예산을 모두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만으로 대비하면 0.04%에 불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진단」

#### Ⅳ.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필요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중 지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즉 총요소생산성(지적자본 등) 증가와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기여를 합하면, 그 합이 1987~1996년 기간에 GDP 증가의 31.7%에서 2000~2005년 기간에는 38.7%로 높아졌다.

〈그림 8〉 GDP 증가율 기여도 추이



자료: Korea Institute of Finance, Kore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각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2007), 「지식 경제 패러다임과 성장정책」 재정리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성하고 양극화 해소, 생애주기의 변화에 부응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종사 인력의 양성 등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으로의 변화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 ◆ 조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 조사필요성 및 목적

- 평생교육법 개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통계정보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 학습사회 성숙도 가늠을 위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 및 학습역량 진단, 학습의 활동패턴을 이해하기 위함
- 평생교육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황 진단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OECD 등 국제기구 표준과 호환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

#### ◆ 조사근거

-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8676호) 제18조

#### ◆ 조사시기

- 2007. 9. 3 ~ 2007. 10. 19

#### ◆ 조사대상

- 전국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07년에는 3,618명이 조사됨

### ◆ 조사방법

- 가구 방문 후 해당 가구원과의 면접조사 실시
  - 가구 구성원 중 직접 면접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유치조사 병행
  - 가구 구성원 전수 조사를 위해서 2~3회 가구 방문 조사가 이루어짐
  - 추출된 조사구 내의 전 가구에 대해 Contact History를 기록하도록 하여 분석 단계에서 가구 무응답 및 추출률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적용함

### ◆ 조사내용(2007년 기준)

| 구 분        | 세부 조사 내용                                                                               |
|------------|----------------------------------------------------------------------------------------|
| 형식교육 참여실태  | — 형식교육참여여부, 참여교육과정, 참여전공, 참여당시 사회적 신분, 교육시간, 교육목적, 학습매체 및 방법, 직장 인지 및 후원, 교육/학습비, 교육성과 |
| 비형식교육 참여실태 | — 비형식교육참여여부, 참여과정수, 참여프로그램, 참여교육기관, 교육목적, 참여기간, 교육/학습비, 자격 및 인증, 직장 인지 및 후원, 교육성과      |
| 장애요인 및 접근성 | — 형식·비형식교육 불참여이유, 형식·비형식교육 참여시 장애요인, 정보접근성 여부, 정보접근방법                                  |
| 학습패턴       | — 학습선호도 영역, 개인학습과정 영역, 학습지향성 영역                                                        |
| 학습역량       | — 언어능력 영역, 수리력과 과학적사고력 영역, 자기학습력 영역, 시민문화능력 영역, 시민사회능력, 문화예술/인문교양능력, ICT 능력 영역         |
| 사회·문화참여    | — 사회참여 영역, 문화참여 영역                                                                     |
| 학습에 대한 태도  | — 학습에 대한 태도                                                                            |

### ◆ 조사자료의 활용

-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결과는 OECD 등 국제 기구에 제출되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실태에 관한 국제적 비교, 분석 자료로 활용하게 될 예정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 ◆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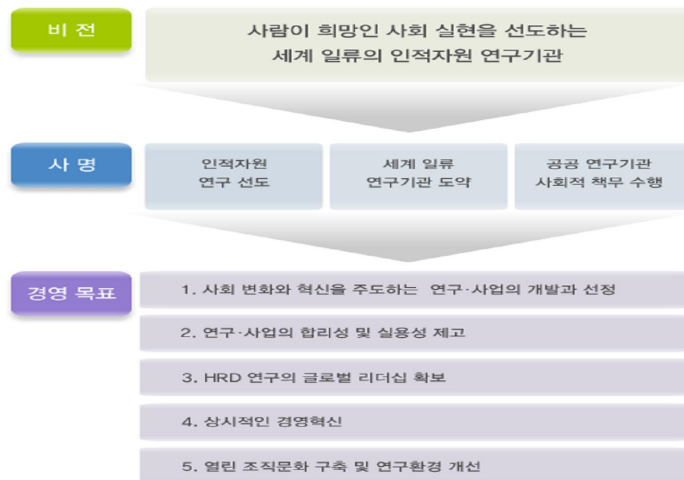
국가의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평가하며 국민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 준비, 계속 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 및 자료를 수집, 관리, 보급하며 학력 못지않게 능력과 자격이 인정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민간자격제도의 국가공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을 연구하고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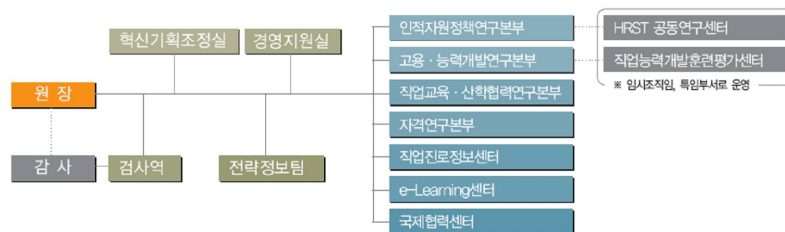
- 1996. 대통령 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립 제안
- 199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립
- 1998. 기관지'직업교육훈련'창간 (2004년 표지 제호'The HRD Review'로 변경)  
학술지'직업능력개발연구'창간
- 1999. 제2차 UNESCO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개최  
진로정보센터 개소 및 Career-net 개통
- 2000. UNESCO 직업기술교육훈련 우수지역센터 개소
- 2001. ILO-KRIVET Workshop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  
OECD-KRIVE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Learning Policies  
제3회 직업교육훈련박람회'21세기 직업과 나의 진로'개최
- 2002. e-Learning센터 설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보시스템(NHRD-net)'개통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미래의 직업세계'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

-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별관 개소  
인문사회연구회 우수기관 선정 표창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주관기관 선정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개소
- 2004. 개원 7주년 국제심포지엄 Linkage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개최  
UNESCO 한국위원회와 공동세미나'21세기 지식혁명과 평생학습사회'개최  
KRIVET-ILO 국제세미나 Technical Consultation on Mobility of Skills in Asia 개최
- 2005. 싱가포르 SPRING, 라오스 교육부, 경희대학교, 국가보훈처, EBS 등 여러 기관과 상호협력협약 체결  
제2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인력수급전망 주관기관  
OECD 성인의 직업기초능력(ALL) 국제비교 연구 결과 발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기관평가에서 우수연구기관 선정
- 2006. '지역권역별 고용·인적자원개발 심포지엄'개최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대통령 국정과제회의 보고  
제1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 2007. KRIVET-ILO 해외직업교육훈련 Workshop  
경영성과관리시스템(BSC) 시행

## ◆ 경영목표



## ◆ 조직도



## ◆ 중점 추진과제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조사
  - 종단적 패널자료 구축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연구와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및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커리어 형성 방안과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전문계 고교 혁신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및 전문계 고교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우수사례 발굴·보급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연구 진행으로 직업교육정책 혁신 방안 실행에 기여
- 산학협력 촉진 체제 구축
  -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전문계 고교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및 학교기업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산학협력 촉진 정책 지원
- 고령친화산업의 직업 연구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전망이 밝은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 생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체제 정비 방안 모색

## ◆ 주요 발간자료



### 직업능력개발연구

- 주기: 연3회
- 제공형태: PDF, 책자
- 구매: 무료, 유료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개 :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임. 연구 활성화, 연구결과나 과정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